



### 인류 구할 책임감으로 집필



**예수는 없다**  
공석하 지음 | 뿌리 펴냄 | 1만2000원

“부끄러운 고백부터 말한다면 종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5여 년 전의 일이다.”

<예수는 없다>는 시인이자 교수인 저자 공석하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저자는 인류를 가장 큰 힘으로 지배한 <성경>이나 <코란> <불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문학을 한다고 40여 년 동안 목에 힘주고 다닌 것에 대해 일종의 회개하는 심정으로 경전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미망(迷妄)과 날조(捏造)의 거대한 숲 속에 인류가 몇 천년 간이나 문혀서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하며 울분을 터뜨린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인류를 미궁(迷宮)으로부터 구해줘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집필을 했다. 특히 그는 문화작품에 나타난 반(反)기독교적 사상을 통해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철학의 창시자인 에머슨(1803~1882)의 시와, 카뮈(1913~1960)의 소설 <이방인>, 아인슈타인(1879~1955)의 상대성이론을 통해 기독교적 회의관을 표현한다.

저자는 “한국과 같이 광신도들이 넘쳐나는 종교 후진국에서 기독교에 저항한다는 것은 거의 무모한 자살행위에 속하는 짓거리”라며 “누구라도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이나는 기자

### 우화를 통한 깨달음



**틱낫한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 마음이 따뜻해지는 열 편의 우화**  
틱낫한 지음 | 류가미 옮김  
북북서 펴냄 | 1만1000원

베트남 출신의 스님·명사·평화운동가이자 시인인 틱낫한 스님이 열 편의 순수하고 질박한 우화를 통해 깨달음에 대해 말한다. <틱낫한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는 단순한 우화가 아닌 비유를 통해 틱낫한 스님이 펼쳤던 사회·평화운동 당시의 일들을 들려준다.

틱낫한 스님이 태어난 고향이 많은 베트남의 역사는 스님을 평범한 수도승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른 뒤 1954년 베트남과 프랑스는 주네브 회의에서 정전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후 1960년 남베트남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고딘 디엠(1901~1963)은 주네브 회의에서 합의된 총선 실시 조항을 거부하고,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다. 이 전쟁은 틱낫한 스님을 사회운동가에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하게 만들었다.

고딘 디엠 대통령은 가톨릭 교도였다. 그는 평화운동을 펼치는 승려들과 불교도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했다. 자신의 종교를 너무 사랑한 틱낫한 스님은 불교도를 탄압했던 고딘 디엠을 빗대어 ‘그 곳에 아름다운 눈이 있었네’를 썼다.

물론 틱낫한 스님과 그의 동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1967년, 반한불교대학 학생이면서 사회봉사청년회에서 일했던 낫치마이가 분신자살을 했다. 그는 자신을 태워 베트남의 평화를 가져오는 햇불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 책에 있는 ‘옛날 옛적 숲 속에서’는 틱낫한 스님이 자신의 제자 낫치마이를 기리기 위해 쓴 글이다. 또한 ‘소년은 산에서 내리왔다’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과 어떻게 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아보려는 평화운동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용감하게 세상에 맞선 틱낫한 스님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웃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픔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우화집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이나는 기자



**행복에 이르는 뗏목** 최현각 지음 | 석란 펴냄 1만3000원

## 禪, 안락한 삶 위한 도구

“스님, 선불교란 무엇입니까?”

“드림통 속에서는 통을 굴릴 수가 없고 밖에 나와서 밀어 아반 쉽게 통을 굴릴 수 있듯이 선 수행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위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한 불자의 질문에 한국 선학의 최고봉인 현각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답했다. 스님은 “분석심리학자 칼 융(1875~1961)은 ‘선(禪)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불교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훌륭하게 수용해 온 중국 정신의 가장 놀라운 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선(禪)이란 동양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선불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행복에 이르는 뗏목>은 BBS 불교방송에서 불자들이 현각 스님에게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고 답했던 내용을 보완해 펴낸 책이다. 경전, 교학, 한국불교, 중국불교, 수행법, 인간사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응답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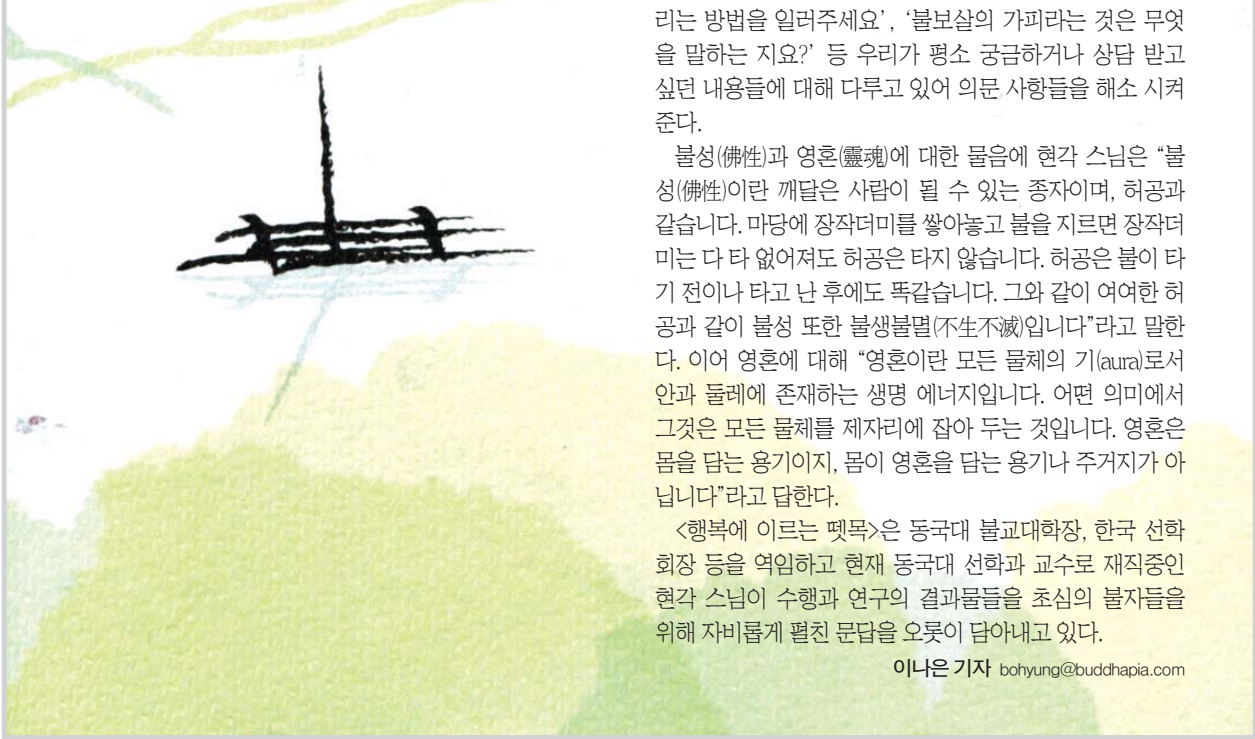
이 책은 △경전-나의 설법을 뗏목 같이 여겨라 △교학-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국 고승-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이다 △중국 고승-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선과 수행법-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앙생활-관세를 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과 마음되기-마음은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불교해설서가 중국스님들을 크게 다룬데 반해 한국스님들을 많이 다루었다.

또한 ‘마음과 행동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불보살의 가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등 우리가 평소 궁금하거나 상담 받고 싶던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의문 사항들을 해소 시켜 준다.

불성(佛性)과 영혼(靈魂)에 대한 물음에 현각 스님은 “불성(佛性)이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종자이며, 허공과 같습니다. 마당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장작더미는 다 타 없어져도 허공은 타지 않습니다. 허공은 불이 타기 전이나 타고 난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여려한 허공과 같이 불성 또한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영혼에 대해 “영혼이란 모든 물체의 기(aura)로서 안과 들레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모든 물체를 제자리에 잡아 두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을 담은 용기이지, 몸이 영혼을 담은 용기나 주머니가 아닙니다”라고 답한다.

<행복에 이르는 뗏목>은 동국대 불교대학장, 한국 선학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현각 스님이 수행과 연구의 결과물들을 초심의 불자들을 위해 자비롭게 펼친 단답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 수행 통해 '참나'의 경지 드러낸 선어록



**나 : 영흥선사 365일 시방법공양**  
영흥 선사 지음 | 하늘북 펴냄 | 1만16000원



“그대가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구나.” ‘즉심시불’을 말한 마조 선사는 원주의 병문안에 이같이 답했다.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 월면불은 하루를 산다. 부처는 영인과 순간을 초월한 존재인 까닭에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은 ‘즉심시불’과 함께 불생불멸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마음은 우리가 ‘참나’라고 여기는 무엇이다. <나 : 영흥선사 365일 시방법공양>은 영흥 선사 사 수행을 통해 ‘참나’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법어집이다.

선사는 ‘나’에 대해 “스스로 성품이 스스로 밝아서 스스로 법계를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세상을 스스로 열고서...”라고 표현했다.

무아(無我)이면서 대아(大我)의 삶을 강조한 선사의 법어는 스스로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흡사 육조 대사의 ‘본래무일물(本來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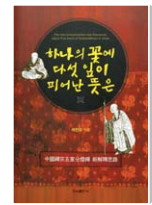
一物)’을 연상케 한다. <금강경>에 “무아 법에 통달한 사람이 진실로 보살이다(通達無我法者 眞是菩薩)”라고 했다. ‘나’라는 아상을 못 버리면 단 번부지만 ‘나’라는 아(我)가 멸진(滅盡)돼 무아가 된 순간 공한 가운데 ‘참나’는 우주법계에 두루한 대아(大我)가 된다. 대아가 바로 ‘일면불 월면불’로 나뉘는 ‘참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에서 춘성 선사의 벽려같은 활(囑)에 언하 대오(下大悟)하고, 24세에 처음 자수용삼매에 들었다. 45세에 서옹 대종사로부터 전법계(傳法偈)를 받은 스님은 진전 백곡 불퇴산 불퇴토굴에서 주석하며 인연 있는 수좌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하며 보림중이다.

수행의 목적은 ‘참나’를 찾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많은 수행자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참나’가 누구인지 모르고 ‘참나’와 대화한 적 없다면 영흥 선사기 본래의 ‘나’와 합일된 경지에서 전하는 ‘나’의 법문을 들어보자.

이나는 기자

### 서양철학 접목한 실상참구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나는 뜻은**  
석진오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1만5000원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나니(一花開五葉) 자연히 열매를 이루리라(結果自然成)’

<경덕전등록> 권3에 수록된 달마 대사의 계승이다. 해석하자면 한 송이 꽃은 부처님을 위하며 다섯 잎이 피어난 것은 중국에서 일으킨 선종(禪宗) 오가(五家)의 선풍(禪風)을 일컫는다. 다섯 장의 꽃잎이 열리는 것이 꽃이 피는 현상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결과라는 것은 작의(作意)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히 성립된다는 뜻이다.

현상이 있다면 결과는 자연히 수반된다는 때와 인연의 진리 규명에 대해 저자 진오 스님은 선종의 오가 선풍을 선사로 중심으로 아우른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뿌린 불법의 씨앗이 이제로는 맛과 향을 지닌 다섯 가지 열매로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 중국 선불교적인 담론으로 접근하며 불법의 본래 ‘일미(一味)’를 맛본다.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나는 뜻은>에 거론되는 중국 선종을 대표한 위양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원류는 470년 중국 양나라 28대 조시인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옴에 따라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에게로 이어진 참다운 실상참구다.

이에 덧붙여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서양철학을 접목해 ‘진리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띄운다.

평소 삶이 도(道)라면 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까? 위산 선사(771~853)는 평상의 일상행이 모든 것의 도라고 말한다. 반면 저자는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매달리게 하고 몰두하게 하는 궁극의 유전자는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를 묻는다.

<장작불> <살의 소리> <사문의 노래> <오래된 미래> <항기나는 집소> <새로운 문화유전자>의 편집·발행인이기도 한 저자는 <금강경과 함께 깨어나기> <4개 국어 금강경>을 비롯해 <강원스님들을 위한 금강경 강의본>과 <금강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 <금강경> 관련 저서를 선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선사상을 인물별로 재검토한 <정반대의 조화>와 <스님들이 보는 만화> 등 다양한 발상으로 불교에 접근해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연숙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디온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성철스님 회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4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이 역면	민족사
5	아발로키테슈와,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인과경	현담	선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살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강우회	양우
9	간경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출판사
10	하늘이 감춘 땅	조현	한겨레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권,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순금정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연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90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거면이 저명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제)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작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이덕과 복원을 마음과 이루어 주어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열돌기 의료기인종,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기 장애설립, 전자기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신약의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차가만 해도 오장육부 를 건강하게 하리 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쓰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열돌기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영애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